

화순팍 매출 20억 돌파...올해 목표 30억 달성 위해 순항 중

13일까지 전 상품 20% 할인 쿠폰 등 이벤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이 올해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설된 화순팍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팍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최고 매출 16억을 달성했고, 8월 말 드디어 매출 20억을 돌파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

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여름 이벤트,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화순팍을 알리고, 우리 군의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복숭아, 샤인머스켓, 한우, 돼지고기, 장어, 보리굴비, 기정떡, 화순쌀 등이 인기를 끌었다.

작년 위탁운영 했던 화순팍을 올해부터 화순군이 직접하면서 고객

들과 직접 소통, 회원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하게 해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매출 증대에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화순팍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화순팍에서는 9월 13일까지 「추석맞이 달달(月)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현된 농촌활력과정은 "화순팍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욱 도약하는 화순팍이 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집중

장성군이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족행복센터(장성을 영천로 199-10) 개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900평(2957㎡)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지상 2층 규모에 커뮤니티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 단계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닥 면적 300㎡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담양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자농촌 구현, △담양형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정민 기자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농작물 피해가 거의 없어 전년(3만7756톤) 대비 11%가량 증가한 4만2천~4만4천톤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른 추석으로 적기 수확을 통해 선과 중인 물량은 3231톤으로 전년 3천616톤과 비교해 10.7%감소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추석 최고의 선물 '나주배' 선별 한창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상품 나주배 선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농작물 피해가 거의 없어 전년(3만7756톤) 대비 11%가량 증가한 4만2천~4만4천톤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른 추석으로 적기 수확을 통해 선과 중인 물량은 3231톤으로 전년 3천616톤과 비교해

10.7%감소했다.

현재 나주배 선물은 7.5kg(특) 기준 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고품질 배 브랜드인 '천년이음나주배' 판로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몰'에 출시한 천년이음 나주배 품종은 수확이 빠르고 당도가 일품인 국내 육성 신품종 '신화'

'창조'이다. 생산 단계부터 생장조절제 무처리(무GA),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색깔, 신선도 등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했다.

천년이음 나주배는 롯데백화점 전체 매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 65톤을 조기 출하하는 등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광, 추모공원 명칭 주민 선호도 조사

13일까지 군 홈페이지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점성)은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가칭)'의 명칭 선정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주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추모공원 명칭 공모를 통해 접수된 85편의 응모작들 중 1차 심사로 선정된 10편과 기존 사업 명칭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포함해 총 11편의 명칭을 놓고 영광군 누리집(열린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에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부 검토 후 이달 중에 정식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 명칭으로는 ▲영

광군 천년의빛 추모공원 ▲영광 추모의 숲 ▲영원의 뜰 ▲영광 빛누리 추모공원 ▲천년기억공원 ▲영면원(靈眠園) ▲영광상사화추모원 ▲영광 위안의 숲 ▲하늘바람(꽃)추모공원 ▲하늘길영광추모공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등 총 11편으로 1인당 2편씩 선택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추모공원의 명칭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천자연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률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